

대법원 “소수 인종 대입 우대 위헌”



▲ 공정한 입학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 SFA)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앞에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대학이 입학 과정에서 시행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학을 위한 학생들(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각각 6대 2, 6대 3으로 위헌 결정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대학 입학 등 고등교육 과정에서 가산점 내지 쿼터제를 통해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 고등교육에 수혜를 주는 제도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연방정부 계약 업체 내 차별 금지 행정명령으로 부터 비롯됐다.

해당 정책이 대학 입학에 적용되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입학에서는 해당 정책이 흑인과 라틴계에는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면서 백인과 아시아계는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8년 한차례 해당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했으며, 이후

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위헌 판단으로 향후 미국 내 대학 입학 제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레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총 6명의 대법관이 이 정책에 위헌 판단을 내렸다.

반면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스티브 브라이어 전 대법관 후임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노스캐롤라이나대 사건에 합헌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의견에서 “학생들은 인종적 기반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라며 “많은 대학이 너무 오랫동안 정반대의 일을 해 왔고, 그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의 기준이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다.

CNN은 이날 내부 수석 법률 분석 전문가를 인용, 이번 결정이 “교육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대학 선택 시 고려할 요소

7월이다. 대학 일리 원서 마감까지 불과 4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11학년들은 이제 지원할 대학을 골라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은 약 4,000여 개. 이 가운데 10개 정도를 선택해 지원을 해야 한다. 최근 대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2~15개까지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10개가 합리적이다. 10개 대학 지원이 일반적이지만 상위권 대학에 꼭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학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합격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학생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많은 학부모들은 ‘명성’을 꼽는다. 특히 한국 학부모는 대부분 ‘대학 이름값’을 대학 선택의 제1조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학비’를 무시할 수 없다. 학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무리 유명한 대학일지라도 그림의 떡이다.

미국 대학들의 학비는 3~6만 달러다. 여기에 기숙사비까지 합하면 부모가 부담할 금액은 10만 달러에 육박한다. 4년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면 중산층 가정은 자칫 파산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합격 가능성이다. 명성에 얽매어서 대학을 지원할 경우 자칫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다. 합격률 5% 미만의 대학들은 어떤 학업적 기록을 가진 학생들도 위험하다. 그런데 여전히 GPA에 취하고, SAT에 취해서 명성 있는 대학에만 원서를 넣는다면 실패를 자초하



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은 명성과 교육의 질이다. 대체적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명성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 교육의 질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명성이 있다고 꼭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많은 주립대학들은 명성은 있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매우 뒤진다. 작은 규모의 사립대학들의 경우 그 명성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수가 적은 인원의 학생을 밀도 있게 지도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대학들이 바로 리버럴 아츠 칼리지다.

그렇다면 전공은 얼마나 중요할까?

한국 학부모들은 ‘전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취업을 잘 하려면 대학 명성보다 전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학 3학년부터 전공을 시작하기 때문에 입학할 시기에는 전공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입학할 때 수학을 전공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대학 3학년 때 컴퓨터 사이언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물론 대학마다 전공을 바꾸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전공 변경에 장벽이 없다.

사진=shutterstock

타운뉴스

www.townnewsusa.com

행복한 소식 가득 전합니다.

좋은 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는 1994년 창간 이래
남가주 지역 한인과 함께
호흡해 온 신문입니다.

타운뉴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562.404.0027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